

‘아름다운 세상’... 여수·순천 장기 기증 확산

관련 조례 제정...기증자 지원 혜택 효과

작년 여수 1004명·순천 1915명 급증세

여수시와 순천시의 장기 기증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증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 명시하고, 각 지자체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 등이 그 원인으로 풀이된다.

여수시는 19일 “장기 기증 조례 제정 후 100여 명이 등록하는 등 생의

마지막 순간 고귀한 선물로 장기를 기증하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시 장기 기증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 동안 1004명의 여수 시민이 장기 기증 신청서에 서명했다. 이전까지 민간 차원에서 이뤄졌던 장기 기증

신청자는 해마다 500~600명 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 확고와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과 시민적 관심은 높아졌다. 시는 지난해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장기 기증 조례’를 제정할 바 있다.

장기 기증 등록자를 대상으로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할인하고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마련했다. 또 장기 이식관리센터를 통해 장제비와 병원비 일부 지원토록 하고 있다. 장기 기증

은 등록자가 뇌사에 처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가족의 동의를 받은 후 안구, 신장, 간장, 심장 등의 장기와 뼈, 연골 등을 적출해 인체조직을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순천시 역시 지난해 장기 기증 희망자가 1915명으로, 2012년 330명에 비해 2.3배 급증했다.

시는 지난해 ‘순천시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시민권 구매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장기 기증 서약은 자신과 하미로 등록증을 직접 작성하고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가족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누리집(www.kono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416명이 장기를 이식해 1700여 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했지만 기증 희망자가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시·청각 장애인 보금자리 광양 ‘해피스틸 복지센터’ 중동 구마 10길 준공 오픈

광양시는 19일 “지난 17일 시각·청각장애인의 보금자리인 ‘해피스틸(Happy Steel) 복지센터’가 중동 구마 10길에 준공됐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재)광양사랑나눔복지재단 자체 기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포스코(POSCO) 임직원의 급여 1% 나눔 운동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된 8억원으로 공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해피스틸 복지센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와 시각장애인의 심부름센터,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 등이 들어서 있다.

한편 광양시는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등 7개 복지시설에 대한 생활서비스 지원사업을 펼쳐가고 있으며, 광양국민체육센터 개관을 계기로 장애인 체육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 목성지구 개발 본격 착수 최근 전남도가 광양시 광양읍권 도시발전의 기폭제가 될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주)부영주택에 사업시행자를 변경 지정하는 신청을 승인했다. (주)부영주택은 LH가 입안한 기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실행을 수정·작성한 뒤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목성지구 전경.

전북

철새 도래지 많고 농장 근접해 자주 발생한 듯

■전북지역 고병원성 AI 잦은 이유는

동진·만경·금강 등 철새 도래시기와 발병시기 일치

밀집형 양계사육 원인 제기 속 2006년 이후 23차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 2006년부터 전북지역에서 23차례 발생해 방역당국이 그 원인 파악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고창군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AI가 17일 고병원성으로 판명됨에 따라 도내에서 2006년 익산, 김제에 이어 2008년, 2010년, 2011년 등 주기적으로 AI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

은 1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발병 원인은 질병에 감염된 철새가 내륙의 가금류에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는 게 일반적인 가설이다. AI의 발병 시기가 철새 도래 시기와 일치하고 발병지역도 철새가 날아드는 지역과 동일해 철새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크다고 방역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전북지역에는 만경강과 동진강, 금강 등 철새 도래지가 널려 있다. 이번에 AI가 발생한 고창군 오리농장 인근에도 저수지가 5곳이나 있다. 특히 대표적 겨울철새 도래지인 동림저수지에서 10여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철새 주범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7일께 이 농장 위로 가장자리때의 군무가 수차례 펼쳐졌다는 농장 직원들의 목격담을 확보했다.

보통 AI에 걸리면 증세가 나타나기까지는 10여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가장자리때의 군무 시기와 증상이 나타난 시점이 얼추 이와 비슷했다

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2006년 AI가 발생한 익산의 경우 겨울철새 도래지인 금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다.

게다가 철새들이 먹이를 찾으러 농가로 찾아드는가 하면 가금류 농장까지 접근해 먹이를 먹고 번까지 보고 있어 AI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새와 생명의 터’의 대표인 장 위로 가장자리때의 군무가 수차례 펼쳐졌다는 농장 직원들의 목격담을 확보했다.

보통 AI에 걸리면 증세가 나타나기까지는 10여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가장자리때의 군무 시기와 증상이 나타난 시점이 얼추 이와 비슷했다

이해 국내를 찾는 철새의 이동 경로는 AI 발생국의 철새 이동 경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AI 때문에 흥역을 앓고 있는 중국에서 날아온 철새가 원인일 가능성도 있다.

일부 축산농가의 견해는 다르다.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좁은 면적에 많은 가금류를 사육하는 국내 밀집형 양계사육형태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이처럼 원인을 두고 갖가지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결국은 차단선을 구축하고 차량과 기구를 얼마나 철저히 소독하고 통제하는지가 확산을 막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창=음형영기자 cy0370@

남원시, 국·도비 등 210억 확보

45개 공모사업 선정...씨감자생산시설 40억 투입

남원시는 19일 “정부와 전북도의 공모사업 가운데 45개 사업(총사업비 424억원)에 선정돼 국·도비 2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준비단계부터 응모, 평가단계까지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한 거시 주요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7억5000만원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구도심에 조성중인 남원예촌, 예가람길(문화예술의 거리)사업, 함파우유원지에 조성중인 시립미술관, 소리문화체험마을, 도예촌을 연계한 문화 콘텐츠

를 개발해 남원을 명실상부한 전통문화의 대표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 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씨감자생산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씨감자 자체 생산 시설을 갖춰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밖에도 시정평가에서도 32건의 우수한 성적으로 5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중 수출 고창 복분자주 선정 고창서해안복분자주(대표 송만환)가 지난 17일 중국 상동성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해구일무역유한공사에 복분자주를 수출하기 위해 ‘선운’ 700세트(2800만원 상당)를 컨테이너에 선적하고 있다. 이 복분자는 중국 상동성 내 유명백화점에 실 명절 상품으로 납품될 예정이다.

나로호 발사 성공 1주년 기념행사 다채

고흥 우주센터 25~31일 개방

오는 30일 나로호 발사 성공 1주년을 맞아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에서는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린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일 “나로호의 발사 성공 1주년을 기념해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나로우주센터를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나로우주센터는 보안상의 이유로 그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으나 나로호 발사 1주년을 기념해 가족과 개인을 대상으로 무료 개방 견학 프로그램을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나로호 발사 준비와 발사 후 추적 등 전 과정을 통제하는 발사통제동(MDC), 발사된 나로호의 궤적을 추적하는 추적레이더 등에 마련된 전망대 등 나로우주센터의 주요 시설을 약 1시간 동안 돌아볼 수 있다.

25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오전 2회, 오후 3회 각 90명씩 나로우주센터에서 마련한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

면서 진행한다. 견학신청은 선착순 온라인 예약을 통해서만 받으며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홈페이지(http://www.narospacecenter.kr)를 통해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으로 문의(061-830-8773, 8777)하면 된다. 나로우주센터는 이번 체험행사기간 우주과학관 무료관람을 실시하고 개관 이후 관람객 100만명씩 입장객에게 기념품 증정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고흥군도 나로호 발사 성공 1주년을 기념해 다음달 2일까지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고흥우주발사전망대 등 우주과학체험시설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연다.

우주발사전망대에서는 23~30일 미니에어로켓, 나로호 모형조립 등 ‘생활과학체험전’과 ‘나로호 발사 성공 1주년 기념사진 전시회’ ‘소망연 날리기 행사’를 마련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u@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주민복지’ 효과

수익금 중 8억 을 복지예산 편성...노인일자리 등 ‘숨통’

곡성군이 지난해 섬진강기차마을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올해 주민 복지 분야 예산으로 편성했다.

군은 19일 “지난해 섬진강기차마을에서 벌어들인 총 수익금은 입장료 수입을 비롯해 42억6000만원으로, 이 중 8억원이 올해 주민 복지증진 예산에 배분됐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3억원, 장애인 월체어 지원 2500만원, 보훈명예수당 54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5000만원 등이 배정됐다. 또 산모·신생아 도우미 본인부담금과 영양물

리수 대상자 본인 부담금 500만원,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4000만원도 포함됐다.

군은 지난해 관광객이 4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뒀으며, 군민들이 직접 관광수익을 체감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수익금 중 일부를 복지예산에 편성했다. 섬진강변의 폐철로에 조성된 섬진강기차마을은 미국 CNN의 한국에서 가봐야 할 50곳,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5호 등에 선정되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단신

순창군, 이주여성 모국방문 기회 제공

순창군은 19일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양육 등의 사정으로 장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이주여성들에게 모국방문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 가족당 4명 이내에서 결혼이주여성, 한국인배우자, 자녀 등과 동반할 때 가능하며, 신청서와 자기소개

서, 출입국사실증명확인서 등을 첨부해 1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순창군청 주민행복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 중 2년 이상 모국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15세대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북경찰, 35사단 정문 앞 시위 엄정 대처

전북지방경찰청이 19일 “새로 이전한 육군 35사단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61)씨 등 5명은 지난달 19일부터 고성능 스피커를 동원해 장송곡 등을 틀고 하루 24시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의 시위에 주민 112신고가 14건 접수됐고, 공무원·군인·민간인 등 14명이 피해를 봐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오씨 등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1일까지 입실 경찰서로 출석을 통보했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정읍경찰-정읍소방서 ‘착한운전마일리지제’ 협약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는 최근 정읍소방서와 착한운전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줄이기에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읍경찰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시행된 착한마일리지제 확산을 위해 정읍시청, 전주지방경찰청 정읍지청

등 10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700명의 서약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읍지역 교통사고는 발생 3.5%(23건), 사망 10.3%(3명), 부상 17.5%(192명) 등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정읍경찰은 분석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전주시, 공동체일자리사업 희망자 모집

전주시는 19일 “2014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를 오는 27일까지 각 주민등록지 중 주민센터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115명을 대상으로 3월3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실시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자로 실업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행정기관에서 소속자임을 증명할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개인별 선정 여부는 25일 개별 통보되며, 근로시간은 주5일 근무, 1일 5시간이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